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10.22~25)

1. 한·일 총리 회담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중국경제망(中国新闻网)은 한국의 이낙연 총리, 외교부 차관 등 고위급 인사가 연이어 일본을 방문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¹⁾
 - 이낙연 총리는 22일 천황 즉위식 참석 후 24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자필 친서를 전달할 것이며, 이를 위해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이 10월 20일 미리 일본에 방문하여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, 수출 제한 조치, 지소미아 종료 등 문제에 대한 타협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
 - 한국 고위급 인사들의 방일과 관계없이 양국 관계가 단기간 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
 - * 또한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5년 내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평가
- 인민일보 해외망(人民日报海外网)에서도 현재 한·일 관계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한국정부가 이번 방일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²⁾
 - 이낙연 총리는 방일 기간 동안 일본 정계, 학계 등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과 만나 정치와 경제 문제는 분리하여 해결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(日本放送协会)
- 인민일보 해외망(人民日报海外网)은 10월 24일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

1) 「韩政府高层密集访日 韩日关系短期内能否回暖?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10. 22)

2) 「韩总理在日连会多方要员:政经可以分开,要用对话化解矛盾」, 『人民日报海外网』(2019. 10. 23)

총리가 회담에서 한·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을 방임하면 안된다는 의견에 합의했다고 보도³⁾

- 조세영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한·일 양국 대표는 서로를 중요한 이웃 국가로 여기므로 양국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방임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회담 결과를 발표
- 한국 정부 측 관계자는 이번 양국 대표 간의 회담이 하나의 전환점이라며, 이는 양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으므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함.

2. 징용 배상 문제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국제재선(国际在线)은 일본 매체를 인용하여 일본 정부가 양국 문제의 주요 원인을 징용 배상 판결로 생각하고 있으며,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⁴⁾
-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외교적 루트 등 대화는 중요하나 양국 대립 해결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 보도(日本共同社)
-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주동적으로 국면을 타개하지 않는다면 정상 회담을 진행하기 어렵다며,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지혜로운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
- 관찰자망(观察者网)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관련 문제, 수출 제한 조치 등에서 아직 한·일 양국 의견은 대립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의견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보도⁵⁾

3) 「韩国总理访日, 日韩能破镜重圆吗?」, 『人民日报海外网』(2019. 10. 24)

4) 「日韩因劳工问题僵局难破 安倍:不能“放任不管”」, 『国际在线』(2019. 10. 24)

5) 「韩外长:韩日分歧仍悬殊, 但略有缩小」, 『观察者网』(2019. 10. 24)